

높아진 투표율... 민주당 “18석 굳히기”·민생당 “2~3석 기대”

광주·전남 높은 선거 열기에 여·야 막판 총력전
정의당도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올리기 안간힘

총선 D - 2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사전투표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야의 막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민생당은 수년 동안 쌓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 이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끌어 올렸다고 판단,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 8석, 전남 10석 중 민주당은 18석 석권을 목표로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갔고, 민생당도 2~3석을 목표로 막판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문재인·민주당 바람’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전국평균 26.69%였고, 전국적으로 전남(35.77%)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32.18%)도 4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호남 전체가 전국평균(26.69%)을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광주시장 송갑석 위원장은 12일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호남의 사전투표율

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민주당은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북구갑 선거구는 초반 조오섭 후보와 무소속 현역 의원인 김경진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확장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목포도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간 판세를 경합 우세로 분류했다가 최근 김 후보의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민주당 김승남 후보와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선거 초반 경합을 벌였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세지면서 김 후보의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광주·전남 18석 완승을 내다보고 있다.

민생당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생당 광주시장한 관계자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민주당 바람’ 탓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민주당과 민생당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말해준다”면서 “조직력을 앞세운 민생당 지지세가 높은 사전투표율을 이끌었고 광주·전남 선거구 2~3곳에서는 민생당이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민생당 후보들은 대부분 ‘사생결단’의 각오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천정배(광주 서구을)·장병완(동남갑) 후



군인들, 거리 유지하며 사전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10일 광주 북구 오치1동 투표소에서 육군 31사단 장병들이 투표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한 채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가 ‘마지막 총선 출마’를 선언했고, 천 후보는 3전배를 시작했다. 박지원(목포) 후보도 눈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당 후보들은 ‘민주당의 바람’에 맞서 ‘호남 대통령·정권 재창출’을 위한 ‘민주당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처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무소석 김경진(북구갑) 후보 등도 ‘당선 후 민주당 복당’을 전면에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정의당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비례대표 정당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민중당도 광주 출신 비례대표 1번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김해정 후보가 전국의 노동자들과 접촉하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2명, 전남 6명에 그친 데다 당세도 크게 위축돼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내년 1월 목표 ... 4개 지구 5월 말 공식 지정 예상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4개 지구는 산업부의 공식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된 곳은 빛그린 국가산단, 에너지 밸리 일반산단, 도시 첨단 국가산단, 첨단 3지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빛그린 산단), 스마트 에너지 산업(에너지 밸리 산단·도시 첨단 산단), 인공지능 융복합 집적단지(첨단 3지구)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시설이 들어서는 곳이다. 예비 지정 단계이긴 하지만, 그동안 타 지역 전례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말께 공식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 투자 기업에 유리한 경영 환경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려고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반곡,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 안골 등 전국에서 8곳이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공식 지정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지구, 정원 승인을 받고 조례, 규칙도 마련해 내년 1월 출장소 성격의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상생과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로 설정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35.77%·광주 32.18% ... 유권자 3명 중 1명 사전투표 했다

전국 26.69% 역대 최고

제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 수준인 26.69%로 집계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에 시작해 11일 오후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에 총 4399만4247명의 선거인 중 1174만2677명(26.69%)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35.7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4.7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세종 32.37%, 광주 32.18%, 강원 28.75%, 경북 28.70%, 경남 27.59%, 서울 27.29%, 대전 26.93% 등의 순이었다. 충북 26.71%, 울산 25.97%, 부산 25.52%, 충남 25.31%, 인천 24.73%, 제주 24.65%, 경기 23.88%로 뒤를 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23.56%에 그쳤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2017년 대선 때의 26.06%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0.63%포인트 높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16년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12.19%)보다 14.50%포인트, 직전 전국 단위 선거였던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율(20.14%)보다 6.55%포인트 각각 높다.

이처럼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전체 총선 투표율 상승으로 이

어질지 주목된다.

2000년 이후 실시된 총선 투표율은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었다. 이번 총선 직전인 2017년 대선에서는 77.2%,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60.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은 데다,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높은 투표 참여를 보인 만큼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길지 주목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 선거 당일 투표의 혼잡을 피해 ‘분산 투표’가 이뤄진 것이라면 투표율이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건설단체 연합회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 인류의 새로운 미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호남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구축해야 합니다.
- 이곳은 안정적인 지반, 넓은 부지, AI 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은 물론 한전공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에너지 관련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전북대, 전남대, GIST 등 호남권 대학과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이룰 가속기 구축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대폭 확충해 광주의 AI·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우리 광주·전남건설단체 연합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2020. 4. 13.

광주·전남건설단체 연합회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 회장 공후식
대한주택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회장 정원주
대한전문건설협회전라남도회 회장 오종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이길남
대한건축사협회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현구
한국전기공사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노정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광주·전남도회 회장 손대겸

대한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김영주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이서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회장 최봉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전라남도회 회장 박영수
대한건축사협회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한국전기공사협회전라남도회 회장 김려욱
한국엔지니어링협회광주·전남·제주지역지회 회장 김영균